

남원시, 중소기업 기 살린다

전입하는 근로자에 일정기간동안 정착금 지원 조례 내년 본격 추진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業)업(up)을 위한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도내 최초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정착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2016년 12월 제정되어 2017년부터 본격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시가 관리중인 7개 농공단지와 2020년 완공될 사매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해 시행될 시책으로, 인근 시군의 산업단지 보다 근로자 확보에 우위를 점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 입주한 기업체에서 남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수한 교통 접근성,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투자환경은 좋은 편이나 근로자 인력확보에 가장 많은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여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원시는 기업후견인제, 기업방문행정, 기업 멘토링제 등을 통해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이환주 시장은 직접 기업체를 방문, 기업인과 근로자의 현상의 소리를 청취하는 소통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보철석재단지 입주업체 제한을 풀어 타업체 입주를 가능케하여 석재단지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사매면 춘향페스티벌에서 17번 국도로 직접 진입 가능하도록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반영하는 등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한 제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출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애향장려금을 27명에게 27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기업들의 자금해소 및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및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의 지원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애향장려금 지급,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양일규 경제과장은 "갈수록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올 한해 순창군정이 다양한 문화시책과 군민편의 사업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느때보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효과 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순창군, 문화시책 확대 · 삶의 질 개선

오케스트라 공연 · 작은영화관 · 작은목욕탕 등 운영

올 한해 순창군정이 다양한 문화시책과 군민편의 사업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느때보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효과가 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를 문화융성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시책을 펼쳤다. 문체부 선정 군단위 문화지수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드는 실적을 거뒀다. 우선순위에 띄는 사업은 늘어난 문화공연이다.

군은 문화단체상주공연 사업에 선정돼 올해는 향토회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7회 운영했다. 또 창작 오케스트라 공연, 도립국악원 공연, 국악한마당 공연 등 대형 공연만 10회 진행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주말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 꾸미는 작은 공연도 큰 사랑을 받았다. 작은영화관도 올해 군민들에게 인기를 끌며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체의공간영화관사의 올해 영화 관람인원은 58,100명을 넘어섰다. 군단위 작은영화관에서는 이례적 성공사례다. 군립도서관에서는 크고 작은 전시회, 공연, 특강행사 등 79회 과정을 운영해 17,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미술관도 올해 기획전시회를 10회 운영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한몫했다.

문화시책과 함께 올리는 군민들이

느끼는 생활체감 시책도 대폭 늘었다. 우선 10개면 중 구립면을 제외한 9개면에 작은목욕탕이 운영됐다. 고령인구가 많은 면단위에 천연으로 즐길 수 있는 작은목욕탕은 면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읍은 노인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료 지원이 이뤄져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군민들의 민생질문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과 민생질문 건강관리 사업들도 군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한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주요핵심사업 로드맵 보고회

임실군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17년도 주요핵심사업 로드맵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우 부군수 주재로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는 지난 26일 농업정책과와 축산산림과를 시작으로 총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도 군정 주요 핵심사업인 115개 사업의 준비상황과 월별 세부 실행계획 및 집행계획을 해당 팀장이 보고하고 정점사항을 상호 토론했는 자리로 진행된다.

또한, 보고회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과 문제점은 보완하여 주요핵심사업 로드맵을 확정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부진한 사업은 현장방문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신경우 부군수는 "오는 2017년은 살



고 싶은 임실을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및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집행 및 내년 상반기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준비상황 · 세부실행계획 등

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1월부터 주요사업 업무계획과 연계해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1차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군수와 실무팀장이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군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곳곳에 사랑나눔 잇따라

체육회 성금 200만원 · 이장단협의회 100만원 등 기탁

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의 열기가 뜨겁다.

고창읍 체육회(회장 박성만)는 홀로 어르신 등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28일 고창읍사무소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읍 체육회는 합동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매년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고창읍 이장단협의회(회장 김호진)도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읍 이장단협의회는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창에 거주하는 1959년생들의 모임인 고창군 기해생연합회(회장

임계환)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해회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신학준 고창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모여 고창읍이 더욱 살맛나고 훈훈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웃사랑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읍사무소는 전달받은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온천수 활용한 연구 성과 다룬 '순창 물백서' 발간

군, 물 섭취 · 체내기능 등

순창군은 2009년도부터 7년여 걸친 온천발굴부터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성과 등 7개 분야 240여 페이지 분량의 '순창 물백서'를 발간했다.

'순창의 물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물 백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책의 전반부는 물 섭취와 체내기능, 올바른 물 섭취 방법, 좋은 물의 조건 등 평소 무심코 마셨던 물에 대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연관하여 물을 마시고 활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마을의 터전이자 추억과 전설을 담고 있는 우물과 국내의 물 산업 동향과 전망, 순창의 물 산업 육성 등 물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온천 보조공 1공을 추가로 개발해 총 4공에 1일 적정 양수량 2,406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천수를 활용한 '수(Water)체험센터' 건립, '발달지수변개발사업' 유치 등 군립공원 강천산과 연계한 체류형 힐링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수주 군수는 "이번에 물 백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은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물자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업발굴의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산업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 말했다.

군이 개발한 강천산 음용온천수는 2011년도 한국물학회가 인정하는 '한국의 좋은물'로 선정된 이후 SBS 스페셜 '물 한잔의 기적', MBN 천기누설 '내 몸을 살리는 물'에 소개되면서 온천수를 음용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군은 이번 물백서 발간으로 순창의 물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시장, 지리산댐 건설 재고 건의

이환주 남원시장은 최근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계획 재고(再考)를 건의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리산댐(문정댐)은 2012년 댐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5월 홍수조절용 댐으로 총저수량 67백만톤, 댐 길이 736m, 높이 107m로 계획추진 중에 용유담 수몰 문제 등으로 현재 중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상남도도는 2016년 9월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지리산댐(문정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식수담 개발부서 신설 입법예고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식수담 기본구상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간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행보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

다.또한, 지리산댐(문정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결과(B/C=0.688) 경제성 없음으로 조사 되었었는데도 다목적댐으로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남원시장(이환주)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댐건설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리산의 생태계 보호, 문화재 보호 등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계획은 반드시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건의하였으 며, 앞으로도 댐건설 반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남원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돌리사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올해 4/4분기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박우정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등 통합방위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올해 정기회 4회를 비롯해 임시회 2회 등 총 여섯 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과 FB(독수리)훈련, 읍지연습 등 각종 훈련지원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4회와 통합방위 상환조치 매뉴얼 정비 등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 체계 속에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날 올해 통합방위협의회 주요 성과와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7년 민방위 실시계획' 심의 의결 등을 진행했다.

박우정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전곡을 강타한 AI 발생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든든한 안보환경을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조달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임실군이 28일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조달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조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전달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해 임종식 전북지방조달청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달청장 기관표창 및 유공직원으로 이경철 주무관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군은 물품 구매, 공사·용역계약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조달청은 매년 조달사업 발전과 조달시책에 기여한 수요기관 중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조달실적 성장, 사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순창경찰,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2016년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한 6명을 파출소로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년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지도 및 보호조치 활동 등 치안보조인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추가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연 대원은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인식이 밝아지는 모습에 매우 흐뭇했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며, 앞으로는 아동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